

간호사 국가시험 내년 1월 22일

시험장 울산·충북·충남·경북 추가 ... 총 16개 지역에서 실시

답안카드 채점방법 변경됨에 따라 '각별히 주의해야' 예비마킹 흔적 남아 있는 경우 중복답안 처리

2020년도 간호사 국가시험(제60회)이 내년 1월 22일, 조산사 국가시험(제31회)이 내년 1월 15일 실시된다.

내년 시험이 실시되는 지역으로 울산, 충북, 충남, 경북이 새로 추가됐다. 특히 내년부터 답안카드 채점방법이 기존 OMR관독기에서 이미지스캐너로 변경되며, 예비마킹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답안으로 채점돼 해당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2020년도 간호사 및 조산사 국가시험 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시험은 내년 1월 22일(수)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2월 14일(금)이다.

시험이 실시되는 지역으로 울산, 충북, 충남, 경북이 추가됐다. 이로써 시험은 지난해 12곳에서 4곳이 늘어나 총 16곳에서 실시된다. 시험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이다. 시험장소는 12월 5일(목)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은 △1교시-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2교시-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3교시-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보건약물관리법규다.

◇**조산사 국가시험**= 내년 1월 15일(수) 시험이 실시되며, 1월 31일(금) 합격자가 발표된다. 시험은 서울에서 치러지며, 시험장소는 12월 5일(목)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

이다.

조산사 국가시험 과목은 △1교시-조산학(마취학 포함) △2교시-신생아간호학, 모자보건학(가족계획 포함), 모자보건법이다.

◇**응시원서 인터넷접수**= 응시원서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다. 간호사와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0월 7~14일이다.

2017년도 하반기 보건직업인국가시험부터 인터넷접수로 일원화됐다.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에 국시원을 방문해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답안카드 채점방법 변경**= 국시원은 내년 시험부터 채점방법이 기존 OMR관독기에서 이미지스캐너로 변경된다고 밝히고, 수험생들이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볼펜, 연필, 샤프펜 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펜의 종류나 색깔과 상관없이 중복답안으로 채점돼 해당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예비마킹을 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를 깨끗이 지워야 한다.

한편 국가시험 시험일정, 접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신규간호사 이직방지 힐링프로그램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2019 신규간호사 이직방지 힐링프로그램'을 8월 1일 개최했다. 입사 3년 이내인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서울·강원, 인천·제주, 경기 권역의 신규간호사 189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전국 권역센터별로 여섯 차례 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간호사들은 먼저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탐방을 통해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이념과 정신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대한간호협회 KNA연수원으로 이동해 특강을 들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참석해

신규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의료법과 간호정책' 주제로 강연했다. 신경림 회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래 너 여기까지 잘 왔다' 주제로 김창욱이카데미 김창욱 대표가 강연했다. 강연 후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힐링타임을 가졌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중앙센터 및 전국 9개 권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센터는 △서울·강원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제주 △광주·전북 △전남 △대전·충북·충남 △경기 △경남 권역센터 등이다.

이진숙 기자 jslee@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강원도 지정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사업 형태로 강원도에서 실시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회의를 7월 23일 열어 강원도(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한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혁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에 근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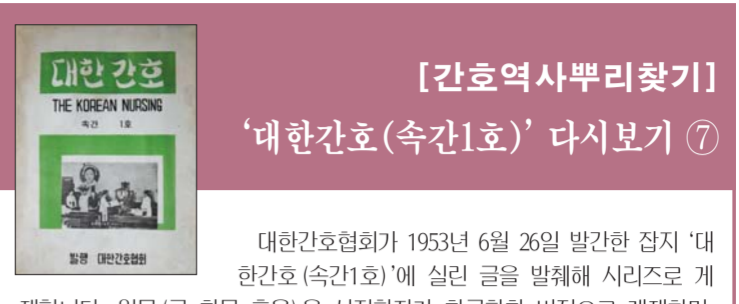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원격의료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

오지에서 실시된다. 당뇨 및 고혈압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 1차 의료기관(의원)이 참여한다. 의사는 자택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원격으로 진단·처방을 시행할 경우는 방문간호사가 환자 옆에 입회해야 한다.

사업비는 규제특구를 위한 예산에서 지원되며, 환자의 부담금은 없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실증특례 부여 시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사업시행과정에서 수시 점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역사뿌리찾기]

'대한간호(속간1호)' 다시보기 ⑦

대한간호협회가 1953년 6월 26일 발간한 잡지 '대한간호(속간1호)'에 실린 글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원문(국·한문 혼용)을 서지학자가 한글화한 버전으로 게재하며, 간호사 명칭은 당시 불렀던 그대로 간호원으로 삼습니다.

*아래의 글은 '제7회 대한간호협회 총회에서 표창되어 순금 메달을 받은 신 우리의 모범 다섯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 다섯 어른 ... 보건부장관 표창 받아

이 정 애

국내 근대적 간호교육에서 한국인 지도자로서의 시조요 어머니이며, 미국 면허소지자로서 유일한 이정에 선생님은 이화대학 문과 및 보육과 졸업. 하와이 퀸스병원간호학교에서 수업. 귀국하여 서울 세브란스간호학교에서 최초 한국인 교관(敎監)으로 많은 후배를 가르치고, 1937년 영국 런던 개최 ICN(국제간호협회)에 대표로 참석. 그 후 이화대학에서 교무. 1948년 도미, 1950년 귀국 후 이화대학에 간호과를 설치, 대한간호협회 회장 역임. 6.25 동안 후 건강의 부자유로 정양 중이심.

이 금 전

보건간호에 선배이신 이금전 선생님은 이화대학 문과 및 북경 연경대학 문리과 수료. 서울 세브란스간호학교 출신으로, 1929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ICN(국제간호협회)에 대표로 참석. 캐나다에서 보건간호학을 전공하시고 귀국 후 제1대 보건간호원으로 활약. 1932년 '간강과 영양' 발간.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 보건간호과장으로 보건간호원 감독회 지도. 보건간호학 편집, 대한간호협회 임원 역임. 1948~1949년 하와이이화인회 알선으로 퀸스병원간호학교에 유학. 귀국 후 세브란스간호학교 초대 한국인 교장 역임. 현재 UNKRA(유엔한국재건단) 간호교과서 준비에 전무 중.

김 정 선

세브란스간호학교 출신. 모교 교무, 보건간호원으로 활약. 특히 대동아전쟁으로 선교회 관 영아보전사업 중단에 임했을 때 서울 대동아재단 영아부를 단독 사자로 경영. 1949년 10월~1952년 3월 도미, 간호 일반유학. 대한간호협회 임원 역임. 현재 대구동산병원에 근무. 과거 25주년 간 계속하여 간호사업에 종사. 결혼까지도 보류되고 있다가 근일 식을 행하실 예정이다. 사업에는 변함이 없겠다고 확언.

원 이 길

세브란스간호학교 출신. 세브란스병원에 계속 근무. 1946년 동 병원에서 15년간 근속한 표창을 받고 계속해서 근무. 6.25 동안 중 국립경찰병원 간호원장으로 임명된 후 계속해서 모범적 근속자로 급년에 23년 표창을 받은 인내성과 책임감이 특별한 선배.

최 월 남

광주도립병원간호학교 출신. 해방 전 해주 구세병원 간호원장을 역임하시고 그 후 모교인 광주 전남대학 의과 병원에 간호원장으로 총 24년간 빠짐없는 간호사업 실무에 종사하신 간호원들의 따뜻한 보호자요 인자하신 또 하나의 선배.



대한간호협회와 "카톡 플러스친구" 맺기

카톡으로 소식받고 카톡으로 확인하자!
협회 소식이 여러분께 직접 찾아갑니다.

ID : 대한간호협회 를 친구 추가해주세요!

- 1. 친구찾기 메뉴 고르기**
카카오톡 친구리스트 하단 상단의 검색창을 터치해주세요
- 2. '대한간호협회' 아이디 입력**
아이디 입력란에 "대한간호협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3. 친구추가 완료**
친구추가 버튼을 눌러 친구추가를 완료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간호뉴스, 교육정보, 공지사항 등을 카톡으로 받아보세요.